

# 신안군, 친환경 미생물 생산시설 증설

### 유용미생물 연간 공급량 800톤 확대

### 작물 생육촉진·병해충 예방 등 효과

신안군은 친환경농업 육성과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을 위해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을 대폭 증설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유용미생물은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생리활성물질 생성, 유기물 분해 능력이 뛰어나 작물 생육촉진과 병해충 예방 및 축산악취제거, 수질개선 등의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유용미생물은 화학농약과 비료 등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갈수록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는 농촌에서 안전

한 농수축산물을 생산하는데 다양한 용도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매년 고초균 등 4종의 유용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최근 농수축산여가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유용미생물 배양장과 배양설비를 증설하여 연간 공급량이 500톤에서 800톤으로 확대되었고, 지속적으로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새우양식여가에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의 무화과 재배농가는 "농업기술센터의 유용미생물을 꾸준히 사용한 결과 무화과 과육이 단단해

지고 병해충 발생도 현저히 줄었다"며 미생물 효과에 엄지를 치켜세웠다. 기동취재본부

# 지역문화재 활용 공모 3건 선정

### 목포시, 문화재 야행·생생문화재 사업 2건 등 성과

목포시가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2021년 지역문화재 활용 공모사업에 '문화재 야행'과 '생생문화재' 2건 등 총 3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화재 야행은 문화재가 집적·밀집된 지역을 거점으로 문화유산과 주변의 문화콘텐츠를 엮어 야간에 특화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목포시는 2018년부터 4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목포 문화재 야행(夜行)은 지역의 문화·예술인 등과 민관합동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준비 전 과정을 함께 추진하며 목포만의 정체성이 분명한 콘텐츠를 발굴해 진행되어 호평을 얻었다.



이에 작년 문화재청 평가 시 우수한 평가(가등급)를 받아 2021년도에 올해보다 증액된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잠자고 있는 지역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부여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화하는 사업이다. 목포=박정수 기자

# 추석 연휴 환경오염 특별 단속

### 함평군,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순찰·계도·단속 실시

함평군은 추석 전후를 기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감시·감독이 소홀한 추석 연휴를 틈타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오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환경오염 특별 단속기간으로 설정했다.

군은 이 기간 동안 환경부서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꾸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관련 시설에 대한 순찰·계도·단속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폐수배출업체를



가축분뇨 적치 및 오수여가 수로로 흘러들고 있는 자료사진

비롯한 공장밀집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이며, 악취로 인해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축사, 폐수배출시설 등은 사전 계도와 단속, 자율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함평=김광춘 기자

#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영농철 주말 특별근무 실시

### 농업인 임대농기계 사용 불편함 없도록 운영할 계획



영암군은 19일부터 가을철 농작물 수확기를 맞아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주말 특별근

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 초 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인한 농촌 일손부족 현상이 여

전히 지속되고 있고, 또한 유난히 길었던 여름장마로 인한 침수피해, 잦은 태풍으로 인한 낙과피해 등 농가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바쁜 영농철에 농업인들이 임대농기계 사용에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덕진면 본소와 본소 2개소(삼호읍, 시종면)에서 34종 690대의 다양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7,697건 10,694일 일대를 추진해 농가들의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하였다.

영암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봄철에 비해 가을철에는 승용자동차, 콩탈곡기, 전동가위 등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잦은 임대농기계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작동방법을 꼭 숙지하고 야간운행 및 음주 후 농기계 사용을 피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바쁜 영농철 농업인들이 농기계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인력난 해소와 적기영농 추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했다.

영암=조대호기자

# 목포시, 무료 독감 예방접종 확대 실시

### 생후 6개월~만 18세·임신부·취약계층·만 62세 이상 어르신 확대 시행

목포시는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한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2020년 독감(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한다. 지난해 독감 예방접종은 생후 6개

월 ~ 만 12세,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생후 6개월 ~ 만 18세, 임신부, 취약계층, 만 62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 시행한다.

생후 6개월~만 18세 이하 어린이는 연령별, 접종횟수에 따라 9월 8일부터 지정 의료기관(37개소)에서 접종하며 임신부도 9월 22일부터 지정 의료기관(17개소)에서 접종 가

능하다.

10월 13일부터 만 62세 이상 어르신은 지정 의료기관(88개소)에서,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3급), 국가유공자 등)은 해당보건지소에서 무료 접종을 실시하며, 접종 시기를 확인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에 사전예약 후 방문 접종하길 추천한다.

목포=박정수기자

#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 영광군, 29일까지 일제 환급 추진기간 운영

영광군은 29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환급 추진기간'을 운영하여 납세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 8월 31일 기준 누적된 지방세 미환급금은 577만 5천 원이며, 주요 환급 사유로는 국세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납세자의 이종납부, 지방세 납부 후 감면신청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것으로 대부분 3만 원 미

만의 소액이다.

전국 동일시기에 추진 중인 미환급금 일제 환급 계획에 따라 영광군은 이달 말까지 군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읍·면 지방세 담당자와 협력하여 대상자의 환급 계좌를 파악하는 등 미환급금 찾아가주기에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다. 아울러,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환급 안내문을 대상자에게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영광=서희권 기자

# 무안군, 복지기동대 '주거환경개선사업' 봉사활동

무안군 운남면 복지기동대는 지난 15일 저소득 취약 계층 2세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복지기동대원 5명은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도배와 장판을 새롭게 교체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보금자리로 탈바꿈 시켰으며, 지난 긴 장마와 태풍으로 화장실 보수가 필요한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천장을 개보수하

여 쾌적한 환경에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도움을 받은 두 어르신은 "복지기동대의 도움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돼

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박종학 운남면장은 "취약계층 생활 불편 개선서비스 사업에 도움을 준 복지기동대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등 어려운 가정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